

振興會소식

□ 國產 흑백TV 對EC

덤핑수출 재조사 결정

지난달 18일에 개최된 EC 덤핑위원회 (本會 金玩熙 會長 代表 참석) 는 韓國產 흑백TV 對EC 지역 덤핑수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안티 덤핑에 대한 자료를 심의한 후 한국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결론, 구체적인 덤핑사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C 덤핑위원회는 EACEM (유럽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협회) 에 대해 한국產 흑백 TV의 덤핑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오는 9 월중에 EC 덤핑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 흑백TV 對英수출 올해 12만대

對英 흑백TV 쿼터회담 대표단(本會 金玩熙 會長 代表단을 이끌고 참석) 은 런던에서 英國의 RIC (라디오 사업단체) 와 회담을 갖고 81년도 對英 흑백TV 수출 쿼터량을 당초 11만대에서 12만대로 늘리는 것에 합의를 했다. 한편 英國측은 흑백TV 수출 쿼터량을 늘리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韓國이 제 3 국을 통한 對英 흑백 TV우회 수출을 하지 말것과 英國產 부품수입을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5 월말 현재 對英 흑백TV 수출 쿼터량을 11만대 중 54.6%인 6 만67 대가 소진 되었다.

□ 中南美 電子·電氣製品 巡廻展示 및 세일즈 성과多大

本會는 中南美 市場 확대 개척의 일환으로 電子 電氣製品 巡廻 展示 및 세일즈 活動을 지난 6월초에 벌였다.

三星電子 外 12개 업체가 참가한 中南美 市場 개척에서 총 326 만 1,565 弗에 이르는 계약 실적을 올렸다. 상담 추진은 394 만 2,000 弗

6 월 7 일부터 칠레 산티아고,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코타에서 電子 電氣製品을 展示하며 세일즈 활동을 활발히 전개 했는데, 그동안 日製 電子製品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던 그 나라들의 구매자에게 우리나라 製品의 인식을 새롭게 심었으며 새로운 거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한한 市場 잠재력을 지닌 中南美 市場도 많은 나라에서 非正常 貿易을 증가하였기 때문에 正常 貿易거래를 크게 阻害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심한 경우 처음부터 180 日 D/A 거래 요구 등이 많아 철저한 信用調査가 先行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세일즈 활동에서 三星電子는 콜롬비아에 TV 조립공장 투자 여건을 세부적으로 연구 조사한바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交易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진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機構一部 強化

81년 4 월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따라 本會는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電子工業을 高度化 시키므로서 86년 電子製品 輸出目標 70 億 弗을 達成하기 위하여 電子 電氣 업체를 보다 강력히 지원할수 있도록 一部 機構를 強化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企劃調整室(新設)

室長職務代理: 任 淳 億
課 長: 金 康 辰

● 國際部

國際部長 : 黃 圭 輓
貿易振興課長: 李 世 永